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VOL. 95

2026
05
06

“
사람을 사랑으로 진료합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치유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천향의 길입니다!
”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통합의료원보 2026. 05-06



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병원,
환자 중심 혁신으로 미래를 엽니다

가장 소중한 사람을 대하는 마음으로

Editor_백승주

5월은 참 특별한 달입니다.

어버이날과 어린이날, 스승의날이 이어지는 이 계절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사회 곳곳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5월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순천향 설립자 서석조 박사의 뜻을 되새기게 됩니다. "하늘 뜻 받들어 인간 사랑을 실천한다."

순천향의 정신은 단순한 병원의 이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생명을 대하는 마음이고,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약속입니다.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아플 때일수록, 무슨 병인지 몰라 두려울 때일수록 누구보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단순히 치료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기억 되길 원합니다.

순천향대학교병원은 바로 그 마음을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진료의 수준을 넘어, 환자의 마음까지 보듬는 병원. 설명 한마디에도 진심을 담고, 작은 불편에도 귀 기울이며 환자와 가족이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병원. 그것이 순천향이 만들어가는 참 모습입니다.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 이 한 문장 안에는 의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의료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기술이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지키고 위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순천향대병원 임직원 모두는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환자의 아픔 앞에서는 더욱 낮아지고, 환자의 희망 앞에서는 더욱 따뜻해지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실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간사랑'이라는 순천향의 정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5월,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할 때, 병원은 비로소 치유를 넘어 감동을 전하는 공간이 됩니다. 순천향은 앞으로도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 '인간사랑'의 온기가 넘쳐나는 병원으로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순천향

SOONCHUNHYANG UNIV.
MEDICAL CENTER MAGAZINE

2026. 05+06 VOL. 95

발행일 2026년 05월 15일

통권 95호

발행인 이정재(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장)

발행처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편집위원 이미중, 한세형, 이상원, 안지영

주소 서울시 용산구 대사관로31길 31

연락처 02-710-3165 www.schmc.ac.kr

편집디자인 피앤플러스 02-2269-5689

인쇄 (주)대한프린테크



표지설명

순천향대병원엔 환자가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곳입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로 미래를 여는 순천향 전 임직원은 가정의달을 맞아 카네이션으로 존경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06

SPECIAL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1주년
"지역의료 새 지평 열어"

10

LOVE

꽃다운 나이,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 순천향대 부천병원 정형화 성형외과 교수 & 캄보디아 환자 '떼움 쿤데야'



12

FOCUS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

14

HISTORY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 『서석조 평전』 연재 ④
- 서석조, 미국 벨뷰 병원에서 수련하다

16

DOCTOR

환자생명에 진심인 의사,
"가족 통해 환자를 바라본다"
- 천안병원 박상호 심장내과 교수



20

VISIT

병원 내 감염병 차단하는
소수정예 스페셜리스트
- 구미병원 감염관리팀



24

WITH_

'순천향 100년 미래를 향한 동행' 캠페인 공감,
사회 전 분야로 확산



26

PEOPLE

복싱 클러브 낀 여의사,
아시아 챔피언 등극
- 천안병원 서려경 소아청소년과 교수



28

ISSUE

- 전문의 부족 필수의료 위기 속
중증 심장질환 진료 역량 강화
- 간질환, 음주 넘어 대사이상까지
고려한 정밀 접근 필요

30

ISSUE

순천향대 부천병원,
AI 기술로 더 안전한 입원 치료 환경 만든다

32

ISSUE

- 천안병원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 충청 유일 '간암 방사선색전술' 시행



34

ISSUE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퇴직 교직원 모임 '순천향 아너스' 공식 출범

36

KNOWLEDGE

- 수면무호흡 수술 치료,
깊은 잠 잘 자고 자주 안 깨는 환자가 유리
-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혈액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조기 진단·신속 치료 중요

38

KNOWLEDGE

진통제로 조절 안되는 생리통,
단순 통증 아닌 '자궁내막증' 신호일 수도

40

KNOWLEDGE

수술 어려운 간암 환자의 새로운 치료 옵션
'방사선 색전술'

42

KNOWLEDGE

당뇨발, '절단'이 아닌 '보존'의 시대로

44

BOOK

『우리 아이 발달 늦은 걸까요?』
- 김수아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46

ESSAY

"머리 허연 늙은이가 무슨"
그래도 92세 엄마와 함께 본 연극

48

NEWS

천안병원, 새병원 개원 1주년 “지역의료 새 지평 열어”

천안병원이 지난 5월 7일 새병원 개원 1주년을 맞았다. 최첨단 의료환경과 환자중심 진료 시스템을 도입한 새병원은 지역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실제 치료 결과와 의료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글·사진 천안병원 홍보팀



암 치료 경쟁력 강화 ‘더 빠르고, 더 완벽하게’

천안병원은 새병원 개원과 함께 초정밀 첨단 방사선 암 치료기 2종을 추가 도입했다. 기존 장비를 포함해 총 3대의 방사선 치료기를 운영하며, 지난 1년간 약 2만 7천 건의 치료를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는 전국 대학병원 최초로 여성암 전용 방사선 치료기를 운영해 6개월 동안 약 5천 5백건의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여성 암환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간암 치료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가 이어졌다. 간암 다학제팀은 치료 난이도가 높은 방사선색전술을 충청 지역 최초로 도입해 수술이 어려운 환자나 고령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치료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

이 밖에도 암 진단부터 수술까지의 전 과정을 단축하는 ‘암환자 패스트트랙’을 확대 운영했다. 기존 유방암에서 폐암, 위암, 대장암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며 약 750명의

환자가 신속한 치료를 받았다. 이처럼 새병원은 첨단 장비 도입과 치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암치료 전반을 아우르는 선도 의료기관으로 입지를 다졌다.

중증환자 치료혁신 ‘벤치마킹 잇따라’

중증환자를 위한 의료환경 역시 큰 변화를 이뤘다. 새병원 중환자실은 전 병상을 1인실로 구성하고 첨단 공조 시스템을 갖춰 완벽한 감염예방 시설을 구축했다. 간호사 1인이 2개 병상을 담당하는 집중 케어시스템과 독립된 간호 공간은 중환자들에게 최상의 치료환경과 간호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장기이식 전용 중환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기증자와 수여자가 서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치료 의지를 높였다. 이러한 변화는 대한중환자의학회를 비롯한 전국 의료기관의 벤치마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밖에도 중재 시술과 외과 수술을 동시에 시행할 수 있

는 하이브리드수술실은 심뇌혈관질환 치료의 핵심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까지 약 400명의 환자가 하이브리드수술실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응급상황에서도 환자들의 감염 등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효과적인 성과를 거뒀다.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미래형 병원의 새로운 기준'

새병원은 인공지능(AI)을 접목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입원 환자의 심정지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CT·MRI 등 영상 판독을 보조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글로벌대학으로 선정된 순천향대와 협력해 AI 의료융합을 기반으로 교육·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고자 새병원에 AI의료융합기술실증본부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순천향의생명연구원(SIMS)과 의과대학이 함께 바이오-메디컬클러스터를 형성함으로써 AI 활용 의료혁신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 지역 최초로 도입한 다빈치Xi 로봇수술은 지난 1년간 400례를 달성했으며, 풍부한 임상 경험과 수준 높은 의술을 바탕으로 '다장기 절제 성공', '수술 및 재건 동시

시행' 등 다양한 치료 성과를 보였다.

검사 지연 없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국내 최초의 모듈(UCM2)이 장착된 혈액검사 자동화 시스템은 약 940만 건의 검사 실적을 기록해 진단 효율성과 정확도를 크게 높였다.

지역사회와 동행 '치유와 상생의 가치 실현'

천안병원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새병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지금까지 약 7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인력 등에서 대규모 채용이 이뤄졌으며, 장애인 고용도 활발히 진행돼 포용적 고용 문화 조성에도 힘썼다.

또한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의 입원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는 등 새병원 개원 이후 자체적인 후원 사업을 통해 약 40명의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천안·아산 지역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검진비를 지원하는 등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새병원의 쾌적한 환경은 치료공간을 넘어 문화와 예술의 공간으로 확대됐다. '오페라 콘서트' '발달장애인합창단



초청 음악회' 등을 개최해 환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으며, MBC '찬란한 너의 계절에', tvN '첫사랑을 위하여' 등 다수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활용됐다.

상급종합병원 재진입 원년

'지역 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 제시'

천안병원은 새병원 개원 1주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향한 본격적인 도전에 나선다. 이는 단순한 병원의 위상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지역 의료체계 전반의 질적 도약을 이끄는 핵심 전환점이 될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재진입을 통해 중증·희귀질환 치료 역량이 한층 강화되고,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가지 않아도 지역 내에서 최종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현실화 시킬 계획이다.

이는 지역민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응급 및 중증환자 치료의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

수적이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지위는 우수 의료진 확보와 첨단 의료기술 도입, 연구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며 지역 의료 전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다. 이문수 병원장은 "지난 1년은 새로운 환경에서 최상의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며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상급종합병원 재지정과 지역의 중증환자들이 지역에서 최종 치료를 받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학교법인 동은학원 서교일 이사장은 "순천향이 추구해 온 인간사랑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해온 뜻깊은 1년이 었다"며, "앞으로도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와 첨단 의료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고,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꽃다운 나이, 절망 속에서 다시 피어난 '희망'

선천성 질환 등
여러 질병 앓던 외국인 환자에게
새 인생 선물

저개발 국가 지역에서는 여전히 의료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치료가 가능한데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병을 방치한 채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런 환자를 외면하지 않고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이들 또한 존재한다. 부천병원에서 이어진 한 캄보디아 환자의 이야기는 의학이 지닌 선한 영향력이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를 깊은 감동으로 전하고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최종엽



캄보디아에서 온 '떼움 쿤떼아(21세, 여)'씨는 선천성 만곡족, 혈관 기형 등으로 20년간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 꽃다운 나이를 절망과 체념 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야 했던 환자에게 한줄기 빛이 내비쳤다. 바로 기대치 못했던 사랑과 도움의 손길이였다. 떼움 쿤떼아 씨의 사연을 알게 된 한 서울 소재 교회 산하의 의료전문 NGO 단체인 '(사)글로벌사랑나눔'이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고자 나섰다.

'글로벌사랑나눔'은 자금을 지원하고 환자 수술과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파트너로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이 참여했다. 환자 수술과 치료는 족부 전문 치료 경험이 많은 이영구 정형외과 교수가 맡았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양측 하지의 선천성 만곡족(club foot)은 각각 10시간의 수술을 통해 정상적인 발의 형태를 되찾았고 보행도 가능한 상태로 교정에 성공했다.

이영구 교수는 "환자는 단순 만곡족이 아닌 뼈 절골과 관절 교정, 뼈 이식 등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 고난도 복합 기형이었다"며 "특히 수술 당시 발목 부위 혈관 기형이 심해 족관절 교정 후, 최열 혈관외과 교수로부터 혈관 재건술을 추가로 받아야 했다"고 설명했다.

예상치 못한 위기... 정형화 교수가 나서다

완벽한 수술이었지만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위기가 갑자기 찾아왔다. 입원 중 새롭게 발견된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성 림프구 변환 장애) 때문이었다. 상처 회복이 지연되며 양측 발등과 발바닥에 피부가 괴사되고 있었다. 이영구 교수의 요청으로 팔을 걷어붙인 이가 바로 정형화 성형외과 교수였다.

정형화 교수는 "순식간에 오른발의 80%, 왼발의 50% 이상 피부가 괴사되어 재건하지 못하면 양측 발목 절단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지난해 3월 부천병원에 합류한 정 교수는 다행히도 이전 병원에서 하지 재건술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었다. "피부만으로는 발 전체를 덮기 어려워 피부와 등 근육을 포함한 복합 조직이식을 시행했습니다." 양측 각각 12시간에 걸친 고난도 '유리피판 재건술'을 실시했다. 현미경으로 보며 동맥과 정맥을 떼어내 이식 부위 직경 1mm 내외의 미세혈관을 정교하게 문합하는 고난도 수술이었다. "저명한 스승님의 조언까지 구하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혈관 기형, 자가면역질환 등으로 수술 과정이 까다롭고 회복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약 한 달간의 집중 치료 끝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공익적 의료 가치 실현으로 되찾은 한 여성의 삶

하지만 또 다른 문제도 있었다. 수술과 치료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면서 당초 후원비를 초과한 것이다. 이에 이영구·최열·정형화 교수는 부천병원 사회사업팀, 원무팀 등과 연계해 치료비 감면과 후원이 이루어지도록 힘을 썼다. 결국 병원의 도움으로 3개 진료과의 수술비가 전액 감면받을 수 있었으며 입원비도 대폭 감면됐다.

이번 후원에 참여한 부천병원 교수진들의 노력으로 콘바텍, 일동제약 등 협력 업체들도 후원에 동참했다. 200만 원 상당의 치료용 재료들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정형화 교수는 "이번 치료는 순천향대학병원이 추구하는 이념, 즉 공익적 의료가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참여한 교수님과 의료진, 그리고 사회사업팀과 원무팀 등 병원 관계자들에게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환자를 진정 최우선하는 참 의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떼움 쿤떼아' 환자는 빠르게 회복해 캄보디아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 사람들의 따뜻한 손길과 사랑으로 새 삶을 선물 받아 희망을 안고 귀국하게 된 것이다.

병원을 찾은 '떼움 쿤떼아'씨는 "처음에는 발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이 너무 두려웠지만, 많은 분의 도움 덕분에 치료가 잘됐다. 새 삶을 선물한 병원과 의료진에게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다"고 전했다. 이에 정형화 교수는 "의료진을 믿고 잘 따라준 환자에게 감사하며 이처럼 힘든 일을 잘 이겨낸 만큼 앞으로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것이기에 더욱더 용감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는 말로 화답했다. ■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

전면 발레파킹, H³, 중증진료, 인간사랑 가치 실현



순천향대서울병원의 2026년 슬로건은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이다. 올해 1월 취임한 이성진 서울병원장은 "환자가 병원을 찾았을 때 자신이 가장 존중받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겨진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말로 병원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글·사진 순천향대서울병원

"치료를 넘어 존중받는 경험"...환자 중심 가치 실현

환자가 병원에서 경험하는 모든 과정, 즉 진료 전 설명부터 치료, 그리고 이후의 회복 과정까지 전반에 걸쳐 환자가 충분히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는 상태를 만드는게 1차 목표다. 환자는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의료는 그 삶을 지지하는 과정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실제로 순천향대서울병원은

환자경험평가와 의료질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2024년 기준 전국 350여 개 종합병원 중 두 평가 모두에서 13위를 기록한 성과는 이러한 철학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진료 현장에서 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성진 병원장이 강조하는 차별성은 '의료기술의 우위'에만 있지 않다. 중증·필수요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의료 역량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성진 병원장은 진정한 경쟁력은 환자가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 경험의 깊이에서 나온다고 말한다. 이는 의료의 중심을 기술에서 사람으로 이동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H³ 비전'과 환자 중심 시스템 혁신

이 같은 철학은 병원이 선포한 '미래 비전 H³'에도 반영되어 있다. 'Happy healing, Happy hospital, Happy horizon'이라는 세 가지 축은 환자, 병원, 직원이 함께 행복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자가 존중받는 환경은 결국 의료진이 자부심과 보람을 느끼는 조직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다. 환자와 의료진, 조직이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 속에서 의료의 질은 자연스럽게 향상된다. 이러한 가치 실현은 구체적인 시스템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전면 발레파킹, 큰 호응

지난 3월부터 전면 무료 발레파킹 서비스를 도입하며 내원객 불편의 불편을 해소했다. 병원 앞 도로를 가득 메우던 차량 대기 행렬이 사라지고, 주차 대기 시간도 최대 1시간에서 '즉시 이용' 수준으로 단축됐다. 환자 중심 의료 환경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현장에서 가시적인 변화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출범시킨 중증신속지원센터는 중증 환자의 진료 연계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하는 기관이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중증 환자를 빠르게 연결하고

치료하는 이 시스템은 단순한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시간을 존중하는 방식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인간사랑 생명존중'...순천향 정신의 현재형

순천향대서울병원의 이러한 방향성은 설립 이념인 '인간사랑 생명존중'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 병원의 이름인 '순천향'이 '하늘의 뜻을 받들어 인술을 펼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듯, 환자를 대하는 태도는 기술 이전에 인간에 대한 이해와 겸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철학이 이어지고 있다. 결국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이란 환자가 병원을 떠나며 느끼는 감정으로 완성된다. 충분한 설명을 들었는지, 자신의 이야기가 존중받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소중한 존재로 대우받았는지에 대한 경험이 그 기준이 된다. 순천향대서울병원은 이러한 경험을 의료의 중심 가치로 삼으며, 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조직 문화를 통해 이를 실현해 나가고 있다.



발레파킹 서비스 전



발레파킹 서비스 후



한국 현대의학의 성장에 바친 서석조 박사의 삶을 연재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교법인 동은학원은 2021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 '향설서석조탄생100주년기념사업회'를 발족하여 '서석조 평전'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서석조 박사의 활동이 지닌 의미를 역사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서교일 이사장을 비롯한 수많은 연구진이 참여하여 국내외의 수집된 실증적 자료 검토와 인터뷰를 통한 자료를 정리 저술했다. 본지는 한국 현대 의학의 성장에 일생을 오롯이 바친 서석조 박사 삶의 완결편인 '서석조 평전'을 '서석조 박사 탄생 100주년 기념 SCH 플랫폼'의 재발견 일환으로 연재한다.

서석조, 미국 벨뷰 병원에서 수련하다

2년간 병원 내 코넬 의대 교수들로부터 지도

벨뷰 병원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병원 중 하나로 1736년 빈민구호소로 시작하여 1794년 병원으로 재편되었으며, 1861년부터 1898년까지는 자체적인 의학교를 운영하다가 1847년부터 뉴욕 대학교(New York University) 의과대학의 수련병원, 그 뒤 컬럼비아 대학교(Columbia University)와 코넬 대학교의 임상 수련까지 담당하였다. 지역의 주된 진료 및 의사 양성 기관으로서 명맥을 이어온 벨뷰 병원은 다양한 환자군과 여러 의과대학에서 파견된 교수 인력을 갖추고 있어서 수준 높은 지도를 받고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이었다.

서석조는 벨뷰 병원에서 1952년 7월부터 1954년 7월까지 2년간 수련하였다. 그동안 서석조는 병원 내 내과 의료진 중에서도 주로 코넬 의대 교수들로부터 지도를 받았다. 당시 벨뷰 병원은 직원의 인사권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 번째 파트는 컬럼비아 대학이, 두 번째 파트는 코넬 대학이, 세 번째 파트는 벨뷰 병원과 뉴욕 대학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다. 각 파트는 인사권을 지닌 기관에서 파견된 교원들과 그들의 인솔을 받는 레지던트 및 펠로들로 구성되었다. 서석조가 소속된 곳은 두 번째 파트로 코넬 의대에서 파견된 교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이 파트의 코넬 의대 교원은 22명이었으며 서석조는 그들로부터 내과 교육을 받았다.

벨뷰 병원의 레지던트 교육과정은 서석조가 경험한 다른 병원들보다 연구의 측면이 더 강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벨뷰 병원에서 레지던트 교육을 담당하는 의사들이 대학 소속의 교수들이었기 때문이다. 병원과 달리 대학에서는 연구가 진료 이상으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는 교원들의 관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벨뷰 병원 내과 코넬 의대 파트를 통솔하던 E. 휴 러키(E. Hugh Luckey)는

1950년부터 1955년까지 심혈관질환에 관한 7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왕성한 연구 활동을 펼쳤고, 그 밖에도 데이비드 바(David Barr), 루이스 하우스먼(Louis Hausman), 루이스 스티븐슨(Lewis Stevenson), 해럴드 울프(Harold Wolff) 등 명성을 날리던 의학자들이 벨뷰 병원 내과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이들은 내과학계의 최신 논의들을 바탕으로 환자들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레지던트들에게도 콘퍼런스, 세미나 등의 토론을 통해 학계의 중요한 성과들을 숙지하고 임상에 적용하도록 요구하였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교육 과정은 서석조의 학구열을 자극하여 훗날 서석조가 임상 연구를 중시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 전공의 선택, 신경학

벨뷰 병원에 있는 동안 서석조는 신경학을 세부전공으로 선택하였다. 그가 벨뷰 병원으로부터 받은 레지던트 수료 증명서에는 2년간 어시스턴트 레지던트와 레지던트로 근무하였으며, 세부 전공이 신경학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세부 전공 제도는 1940년대부터 외과를 필두로 정식화되기 시작하였으며, 내과에서는 레지던트를 마친 뒤 펠로 단계에서 2-3년의 추가 수련을 거침으로써 류머티스학, 심혈관학, 간담도학, 내분비학 등의 세부 전공을 학습하는 제도가 실시되기 시작하였다.

서석조가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한국에서는 아직 세부 전공의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비록 세부 전공과 비슷하게 일부 내과에 주력 분야가 있었지만 신경학을 내세우는 곳은 거의 없었다. 그렇다면 서석조는 왜 신경학을 세부 전공으로 선택하였을까?

서석조가 신경학을 전공 분야로 선택한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그를 둘러싼 정황을 통해 전공 선택에 관여한 요소들을 추론해 볼 수 있다. 먼저 신경학이 한국에서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야라는 점은 서석조의 호기심을 자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내과는 세부 전공이 나뉘지는 않았지만, 교수의 관심사에 따라 임상 수련을 하는 동안 특별한 주제에 대해 탐구할 기회가 있었다. 그 주제들은 주로 소화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 감염질환 등이었고, 드물게는 내분비 질환과 암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경질환에 대한 탐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론 새로운 분야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만으로 전공 선택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호기심이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분야의 전망에 대한 믿음이 필요할 것이다. 20세기 이래 이루어진 서구 신경학의 성취는 서석조에게 이 분야가 장차 더욱 성장할 것이라는 예감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1930년대 이래 신경의 기능에 관한 과학적 발견들과 EEG의 개발은 신경질환

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켰고, 신경계 감염병과 간질에 대한 효과적인 약물들이 도입되었으며, 하비 쿠싱(Harvey Cushing) 등의 외과의사에 의해 수술적 치료가 발달하였다.

신경학의 과학적 성취에 힘입어 미국 의학계에서는 이 분야를 전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1934년 미국 의사협회 내에는 신경학 전문의의 자격을 관리하는 미국 신경정신과학 위원회(American Board of Psychiatry and Neurology)가 설치되었다.

이 위원회는 신경질환을 다루는 내과 및 정신과 의사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신경학 종사자의 임상 수련과 자격증에 관한 표준화된 규정을 수립하여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였다.

아울러 1947년에는 미국 신경과학회(American Academy of Neurology)가 창립되어 신경과 전문의와 신경과학자들 사이의 학술 교류를 증진하였다. 병원에서는 1950년대 초부터 독립된 신경과와 신경학 수련 프로그램이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1952년 미국에는 약 250명의 신경과 전문의가 있었고 15개 병원에 신경학 수련 프로그램이 있었다.

그러나 1953년 미국 신경질환 및 실명 연구소(The National Institute of Neurologic Disease and Blindness)가 신경학 수련을 지원함에 따라 그 수가 급속히 늘어나, 1950년대 말에는 111개 병원에서 신경학 전문의 수련 프로그램이 운영되었고, 그 중 약 절반에 독립된 신경과가 설치되었다. ■

환자생명에 진심인 의사, “가족 통해 환자를 바라본다”

위급한 심혈관질환자 신속대응 위한 ‘핫라인’ 개설

충남 예산이 고향인 박상호 심장내과 교수는 어린 시절 시골 마을에서 친구들과 뛰놀며 시간을 보냈다. 그 시절 가족들, 친구들, 마을주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어울리면서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만의 마인드가 형성됐다. 이런 박 교수의 어린 시절은 의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의사와 환자 역시 그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글_ 전진용 사진_ 전용철

박상호 교수는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에 유독 친구들과,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다. 함께 뛰어다니고 함께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 관계를 형성하고 함께 돕고 나누는 것이 몸에 배었다. “항상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다양한 성격의 친구들과 함께하며 사람과 소통하고 이해하는 법을 조금씩 배웠던 것 같아요. 야구로 유명한 모교인 대전고 시합에 함께 응원을 다니던 것이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즐거웠던 오랜 추억이죠.”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을 즐겼지만 일에 있어서는 자신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을 원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의사였다.

“특별한 계기가 있기보다는 조금씩 내가 해보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의대가 저에게 잘 맞을 것 같았어요. 의사도 결국은 주변의 의료진, 환자라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소통하는 것이니까요.”

모두와 어울리며 항상 최선을 다하다

의대 시절 역시 박 교수는 많은 이들과 어울리며 그 속에서 여러 다른 사람들의 삶을 경험했다. 선후배들과 품물패 활동을 하며 우정을 나눴고, 농활과 같은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했다. 힘들기보다는 어울림

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과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따스함이 박 교수를 행복하게 했다.

“많은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일 끝난 후 귀하는 한 잔의 막걸리를 마시면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듣는 것은 저에게 중요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박 교수는 시험 날짜를 코앞에 두고도 어르신의 손을 뿌리치지 못해 취할 때까지 술을 먹기도 했다. 하지만 만취한 상태에서도 결국 찾는 곳은 도서관이었다.

“술은 취했지만 잠을 포기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자신 있었던 것이 책임감과 성실함이었거든요. 제가 해야 할 것은 반드시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동아리 활동, 사회봉사를 하면서도 공부에도 최선을 다했다. 여기에 학생회 활동까지 병행하며 열정적이고 최선을 다하며 의대 시절을 보냈다.

환자 살리는 ‘드라마틱’한 심장내과를 선택하다

박 교수는 임상실습 등을 경험하며 심장내과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가장 친한 동기도 함께 심장내과를 해보자고 권유했다. “동기의 권유도 있었지만 실습하고 여러 경험을 하면서 심장내과가 가장 흥미롭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위급한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극적으로 살리는 드라마



박상호

순천향대 천안병원 심장내과 교수

마틱함이 저에게는 큰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교수는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마친 후 주저 없이 심장내과를 선택했다. 이 선택은 훗날 박 교수가 수많은 응급 심혈관질환 환자를 살리게 되는 결정이기도 했다.

“비록 당시와 지금 모두 심장내과는 의대생이 꺼리고 피하는 인기 없는 과이지만, 그동안 제가 살린 환자들을 돌아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환자를 살릴 때까지 무엇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한 후의 기분은 어디서도 느끼기 힘든 보람입니다.”

진료협력센터장 부임, 의료 서비스 발전 이끌다

박 교수는 올해 천안병원 진료협력센터장에 부임했다. 충청권 지역사회에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이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크기에 박 교수의 역할 역시 막중해진 것이다.

“우리병원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병원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진료협력센터장으로서 여러 의료기관과 함께 지역사회 의료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고 더 많은 환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박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시하며 관리해야 할 질병은 감염성 질환, 암, 심혈관질환이라 설명했다. “이 중요한 질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가능케 하는 전문 인력, 첨단장비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여전히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장비의 보완이 이루어지더라도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면 소용이 없거든요. 전문 인력 양성과 수급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 교수는 학술모임, 학회 활동 등을 하면서 우수한 의료진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현실적으로 의료진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 나이가 50대 후반, 60대 정도 될 때쯤에는 심혈관질환을 제대로 맡길 전문의가 있을까? 하는 걱정마저 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력수급을 위해 힘닿는 데까지 힘써 보겠습니다.”

심혈관질환 환자의뢰 '핫라인' 개설

천안병원은 지난해 심혈관질환 환자의 빠른 치료를 위한



의료인 전용 핫라인을 개설해 운영 중이다. 핫라인 개설의 중심에는 박 교수가 있다. 여러 주변 의료기관과 소통하며 핫라인 개설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다. “핫라인은 우리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빠른 입원 치료가 필요하거나 긴급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할 때 매우 효율적입니다. 또한 빠른 외래진료 예약이 필요할 때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핫라인을 통해 환자가 접수되면 병원 심장혈관클리닉으로 즉시 의뢰되고 다학제 논의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른 담당 의료진이 배정된다. 클리닉은 심장내과, 심혈관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의료진과 중환자의학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진료과마다 전담 교수를 지정해 치료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

“병원 내 모든 심혈관질환 교수진과 다학제 치료를 통해 검사, 치료, 사후관리까지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핫라인은 심혈관질환 환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박 교수는 ‘핫라인’은 현실적으로 지방병원에서는 하기 힘든 시스템이라 설명했다. 전문 인력,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365일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서울의 병원들과 지방병원의 차이는 의사의 능력이 아니라 구성하고 있는 인력풀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병원 역시 아직 이 부분이 부족한 상태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 이를 보완하고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모든 의료진들의 이런 헌신적인 활동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환자와 소통하다

많은 위급한 중증환자를 만나야 하는 박 교수에게 환자는 단순한 치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의사는 치료해주는 사람, 환자는 치료를 받는 사람, 여기서 관계가 끝난다면 최고의 치료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또 다른 가족이라는 마음으로 환자를 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의사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고민하고 환자는 의사를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 의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본인 어머니의 주치의이기도 하다. 심장판막질환으로 인해 몇 번의 위기를 맞기도 한 중증 환자다. 박 교수는 직접 어머니의 질환을 관리하며 건강을 돌보고 있다. “아픈 가족을 바라보며 또 저의 환자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소중한 생명이자, 의사에게 있어서 환자는 가족과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좋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의사도 노력하고 환자도 의사를 믿고 함께 노력할 때 최선의 치료가 가능합니다.”

박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20년간 응급환자들을 진료해 왔다. 힘들었던 만큼 보람도 컸던 지난날이다. “당직을 설 때 응급환자가 오면 환자가 믿을 것은 의

료진뿐입니다. 저는 이 환자들을 위해 환자를 살릴 때까지 무엇이든 한다는 각오로 치료에 임해 왔습니다. 제가 살린 환자들을 보며 제가 의사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심장질환 시술 연구와 기기 국산화도 힘써

박 교수는 여러 심혈관질환 시술 분야의 연구에 힘을 쏟고 있다. 더 안전하고 완벽한 시술과 수술을 위한 연구다. 또한 이에 사용되는 기기의 국산화 연구에도 나서고 있다.

“아직 발전 여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저의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수준 높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기기 분야 역시 국산화를 통해 더 많이 보급되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은 새 병원을 통해 하드웨어가 업데이트된 만큼 더 많은 지역사회 주민에게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도 새로운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며 최고의 의료진을 보유했기에 더 많은 발전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천안병원과 본인을 찾는 환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는 병원과 의사가 되도록 항상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배들에게는 “환자를 위해서라면 힘든 일, 험한 길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갖길 바라며, 환자가 항상 최우선인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저의 연구를 통해 더 많은 환자들이 더 수준 높은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기기 분야 역시 국산화를 통해 더 많이 보급되고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병원 내 감염병 차단하는 소수정에 스페셜리스트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빛나는 사명감과 전문성

병원은 다양한 병원균과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공간이다.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와 방문객 등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만큼 감염 예방과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의료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부서가 바로 감염관리팀이다. 구미병원 감염관리팀은 감염관리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소수 정예 인력으로 구성된 병원 내 감염 예방과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글_ 전진용 사진_ 정지선



감염관리팀은 병원 내 감염 예방과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감염 감시, 환자 및 직원관리, 감염 예방 교육 등 전반적인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감염관리팀은 김성수 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와 조정미 팀장, 윤수정 대리, 고운화 사원으로 구성된 정예팀이다. 감염내과 교수의 부재로 인해 김성수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팀을 이끌고 있지만 병원 내 감염 관리에 있어 전문 분야 못지않은 지식을 바탕으로 팀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조정미 팀장은 팀 내 최고 선임으로 그동안 구미병원 감염관리를 이끌어 온 인물이다. 몇 년 남지않은 퇴직을 앞둔 지금도 후배들에게 감염관리 관련 지식과 실무 노하우를 전수하며 감염관리 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윤수정 대리와 고운화 사원 역시 감염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이 분야 최고 전문 인력으로서 손색없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철저한 예방과 감시가 핵심... 빠른 대응 위한 완벽한 매뉴얼

감염관리팀은 체계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중환자실 등 고위험 부서를 중심으로 의료관련감염 및 다제내성균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효과적인 중재활동과 감염 예방 활동을 시행한다.

또한 감염성 질환 환자 발생 시 관련 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법정감염병 환자 관리 및 표본감시 신고 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며,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감염관리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 현장 적용을 지원하고 있다.

감염관리팀은 교직원뿐 아니라 간병인, 환자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과 상담, 자문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직원 감염 노출 시 공상 처리와 예방접종 지원 등 직원 안전 관리에도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병원 환경

및 시설관리 관련 활동을 통해 감염 위험 예방과 안전한 의료환경 유지에 힘쓰고 있다.

다양한 캠페인과 대응 훈련 실시

구미병원 감염관리팀은 감염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감염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병원 내 안전을 위한 다양한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구미병원 감염관리팀은 매년 감염관리의 날을 지정해 행사를 시행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교직원을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감염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의료 관련 감염을 예방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병원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감염관리의 날에는 여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손 위생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씻기 체험과 휴대전화 오염도 측정을 통해 손 씻기의 중요성을 알리고 올바른 손 위생 6단계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의료 관련 감염 예방과 관련한 실무 지식 향상을 위해 감염관리 퀴즈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 발생할 수 있는 신종 호흡기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각 부서별 환자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감염병 확산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도 진행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보호구의 종류와 사용 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행성 감염병 대응 도상 훈련도 매년 시행하고 있다.

의료기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형별 감염병 상황에 대비해 위기관리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손상과 피해를 최소화해 환자와 교직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훈련 프로그램으로는 유행성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매뉴얼 공유와 사례별, 유형별 감염병 대비 도상 훈련 발표 등이 진행된다. ■

MINI INTERVIEW

“감염관리는 눈에 띄진 않지만 가장 중요한 일”

김성수 감염관리실장(소아청소년과 교수)



김성수 교수는 지난해 1월부터 감염관리팀 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문 분야는 소아청소년과지만 감염내과 교수의 부재로 이 자리를 맡게 됐다. 이후 역할에 맞춰 감염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넓혀가며 전문 인력인 팀원들과 함께 병원 내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감염관리팀 업무를 맡아 역할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하며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소수지만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팀원들과 함께 병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힘쓸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비록 적은 인원이지만 최고의 실력으로 갖춘 팀원들이 감염관리팀의 가장 큰 힘이라 전했다. “조정미 팀장은 구미병원 내에서 감염관리 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조 팀장을 중심으로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 병원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비록 구미병원이 다른 병원에 비해 적은 인원의 감염관리팀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전문성과 팀워크만은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있는 팀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전했다.

“더 많은 공부로 감염관리 전문가로 팀에 헌신”

윤수정 감염관리팀 대리



윤수정 감염관리팀 대리는 지난 2021년부터 감염관리팀에서 6년째 활동하고 있다. 조정미 팀장의 뒤에서 많은 힘을 보태고 있다.

“감염관리는 작은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아야 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병원 내 다양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전문적인 지식과 판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더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 내 모든 과와 인원들을 대상으로 관리를 해야 하는 일하기에 힘든 점도 있지만 그만큼 보람도 크다고 전했다.

“감염이라는 것은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일이며 병원 내 모든 사람들의 안전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 병원이 큰 문제 없이 감염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운영되어 온 것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 대리는 “조 팀장님과 같은 감염 예방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 분야 전문 인력으로서 병원 내 모든 이들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공부를 하며 헌신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년 때까지 감염 안전을 위한 모든 노력 기울일 것”

조정미 감염관리팀 팀장



조정미 팀장은 구미병원이 2006년 4월 처음 감염관리팀이 생길 때부터 함께 한 전문가다. 병원 감염관리 체계가 자리 잡지 못했던 초창기부터 감염예방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며 구미병원 감염관리의 역사를 함께 써 내려왔다.

“감염관리는 환자와 보호자뿐 아니라 구미병원 모든 교직원들의 안전이 달린 중요한 분야입니다. 비록 눈에 띄는 업무도 아니고, 때론 타 부서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병원 내 모든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입니다.”

조 팀장은 이제 정년이 멀지 않다. 수십 년간을 구미병원의 감염관리를 위해 힘써온 만큼 감염관리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우리의 노력이 잘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저는 우리 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알고 있습니다. 타 부서와 역할이 달라 더 특별한 의미와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 팀장은 “정년이 될 때까지 저희 부서, 저희 팀원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에서 노력할 것이며 그동안 본인을 있게 해준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의 감염관리를 위해 남은 기간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막내지만, 팀에 보탬 되는 전문가로 성장해 나갈 것”

고운화 감염관리팀 사원



올해 1월에 감염관리팀에 합류한 고운화 사원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다. 경험 많은 선배들과 함께 일하며 하나하나 배워 나가고 있다.

“처음 감염관리팀에 발령이 나면서 이 분야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조직이지만 병원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일하기에 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 사원은 팀 내 선배들을 보면서 감염관리 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한다.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이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팀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을 뒤를 이어 감염관리팀에 힘을 보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 사원은 “감염관리는 병원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라는 것을 느꼈다”며 “모든 팀원들과 함께 감염관리에 있어서 최고의 팀이 될 수 있도록 막내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선배들 못지않은 전문가가 되어 구미병원 감염관리팀의 핵심이 되고자 항상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순천향발전위원회 후원의 밤(26.1.21)

'순천향 100년 미래를 향한 동행' 캠페인 공감, 사회 전 분야로 확산

순천향발전위원회, 3년 만에 약정 모금 216억원 달성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특임중앙의료원장 서유성)이 추진 중인 순천향발전위원회 캠페인이 출범 3년 차를 맞아 의미 있는 성과를 이어나가고 있다. 순천향발전위원회는 순천향이 오랜 시간 지켜온 '인간사랑' 정신을 바탕으로, 환자 중심 의료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출범한 중앙의료원 대표 캠페인 조직이다. 단순한 기부 조직을 넘어, 병원의 미래 비전에 공감하는 사회 각계 리더들과 동문, 기업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대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글/사진_순천향대 중앙의료원 대외협력팀

캠페인은 2024년 신규 발전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기반 조성에 들어갔으며, 2025년 6월 공식 출범식과 2026년 1월 '순천향발전위원회 후원의 밤' 행사를 거치며 점차 규모와 공감대를 확장해 왔다. 현재까지 약 130여 명의 발전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약정 모금액은 약 216억 원 규모에 이른다.

“좋은 병원을 함께 만든다”... 216억 원 모은 공감의 연대

특히 이번 캠페인은 단순한 재정 모금을 넘어, “좋은 병원을 함께 만든다”는 공감과 철학 속에서 성장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실제 발전위원회에는 의료계뿐 아니라 산업계, 법조계, 지역사회 리더, 순천향대 의과대학 동문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순천향이 지향하는 사람 중심 의료와 환자 존중의 가치에 공감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순천향발전위원회 캠페인을 이끌어왔던 이성진 교수가 올해부터 순천향서울병원장으로 부임하며,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한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이 병원장은 부임 이후 환자 경험 혁신과 의료 환경 재정비를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병원 운영 전반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오랜 기간 병원 이용객들의 불편 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주차 병목 문제를 단기간 내 개선하며 환자와 보호자의 체감 만족도를 높였고, 병원 공간과 시스템 전반을 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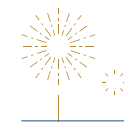
중심 관점에서 재정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 AI 미래의료 비전 본격화

순천향대학교는 최근 교육부 글로벌대학 사업 본지정 대학으로 선정되며 'AI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TOP1' 비전을 공식화했다. 향후 5년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바탕으로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설립, 트라이앵글 캠퍼스 구축, 의료 AI 실증 체계 강화 등 교육·연구·산업이 연계된 미래 의료 혁신 모델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앙의료원 서유성 특임중앙의료원장은 “이번 캠페인은 단순히 기부금을 모으는 사업이 아니라, 순천향이 앞으로 어떤 병원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공감과 철학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발전위원 한 분 한 분의 참여와 연대가 순천향의 다음 50년을 준비하는 가장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향은 앞으로도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병원, 사람의 가치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며 “지금까지 함께해주신 발전위원들의 진심과 앞으로 함께할 새로운 연대가 순천향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은 향후 순천향서울병원 마스터플랜을 중심으로 ▲환자 중심 도심형 미래 병원 구축 ▲중환자 진료 중심 역량 강화 ▲AI 기반 미래 의료 혁신 ▲교육·연구 역량 확장 등 중장기 비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순천향발전위원회 초청의 밤



1차(24.6.12)



2차(24.10.16)



3차(25.2.19)



복싱 클럽 낀 여의사, 아시아 챔피언 등극

의사는 평생의 사명...“세계 챔피언까지 도전 할 것”

복싱 클럽을 낀 의사, 상상하기 힘들다. 하지만 이 만화 같은 스토리를 현실로 만든 이가 있다. 바로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서려경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주인공이다. 올해 3월 복싱 여자 아시아 챔피언에 오른 서 교수는 평생의 사명은 의사이지만 인생의 활력으로 복싱 클럽을 선택했다.

글. 전진용 사진. 최종엽

어린 시절부터 하고자 하는 것에 늘 집중했던 서려경 교수는 운동신경도 뛰어났지만 머리 역시 명석했다. 운동을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이었지만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은 환자를 돌보는 의사의 길이었다. 그녀는 바람대로 의대에 진학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됐다. 환자를 돌보는 것이 인생에 사명이기에 그녀는 모든 열정을 의사의 역할에 쏟았다. 하지만 의사로서 받는 스트레스는 그녀를 힘들게 했다. 우연히 선배 의사의 권유로 복싱을 배우기 시작했다. 건강을 지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일종의 취미였다.

“먼저 취미로 복싱을 하던 선배의 권유로 복싱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땀을 흘리며 펀치를 날리면서 많은 스트레스가 해소 됐어요. 의사로서 힘들었던 것들은 그 시간에 잠시라도 잊을 수 있었거든요.” 그녀의 남다른 운동신경과 펀치력을 주시한 체육관 관장은 조심스레 복싱선수를 테스트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그녀의 복싱인생은 시작됐다. 서 교수가 27세였던 2018년 복싱에 처음 입문했다.

세상을 놀래킨 '강펀치 의사 복서'의 탄생

일반적인 프로 복싱 선수 경력이 이르면 10대 후반부터 시작되는 것과 비교하면 늦은 출발이다. 그러나 강한 펀치력과 타고난 운동신경을 앞세워 14전 중 KO로 거둔 7승을 포함해 10승 1패 3무의 전적을 기록했다.

“30대의 나이로 의사 생활과 복싱선수를 함께 한다는 것이 육체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지만 복싱을 하는 순간만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할 때는 나의 환자가 회복되는 것만큼이나 행복감을 느낍니다. 의사와 복서로서 함께 느끼는 보람이자 보상 같습니다.”

서 교수는 평일은 복서로서 구슬땀을 흘리며 운동에 전념하고 주말에는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밤을 새며 아기들을 돌보고 있다. 힘들만도 한 일상이지만 환자를 살리는 의사로서, 또 챔피언의 꿈을 꾸는 복서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가끔은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의사로서, 또 복서로서 나의 목표를 이뤄나가는 것은 삶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행복해요.”

2023년 한국챔피언, 올해 3월 아시아챔피언 등극

서 교수의 복서로서의 노력과 열정은 바로 성적으로 증명됐다. 2020년 프로 복서로 데뷔해 3년 만인 2023년 7월 한국복싱커미션(KBM) 여자 라이트플라이급(48.9kg) 타이틀전 승리로 한국챔피언에 올랐다. 또한 지난 3월 21일에는 충남 계룡시민체육관에서 열린 WBA(세계복싱협회) 여자 미니멈급(47.6kg) 아시아챔피언 타이틀전에서 승리해 아시아챔피언 자리에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에 ‘여자 의사 복서’ 아시아챔피언이라는 수식어는 전국에 큰 화제가 되었다. 이에 유명인들을 초빙해 인생 스토리를 듣는 국민 MC 유재석 사회의 ‘유퀴즈 온더 블락’에도 초대되어 전국에 방영됐다.

“제가 이렇게 관심을 받을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히 했을 뿐인데요.저의 평생 사명은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 삶의 활력을 주는 것은 바로 복싱인거 같습니다. 의사로서, 복서로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삶이 행복합니다.”

한국의 여의사, 복싱 세계 제패를 꿈꾸다

서 교수는 의사로서는 현재 분야별 의사들이 부족한 국내 의료 현실을 걱정하는 한편, 복서로서는 과거 인기 종목이었던 국내 복싱의 쇠퇴 역시 안타까워하고 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소아청소년과는 전문의 수련 과목을 선택하는 의대 졸업생들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분야입니다. 비수도권의 의료 인프라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복싱 역시 취미로 즐기는 생활체육인이 더 많아져야 그 중에서 프로 선수 진출이 늘어나고 국내 복싱계가 과거처럼 활성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 교수의 목표는 환자에게는 최고의 의사가 되는 것이고 복서로서는 세계 챔피언이 되는 것이다.

“신생아중환자실의 아기들을 보면서 더 훌륭한 의사가 되고자 다짐합니다. 또한 복서로서는 이제 더 큰 꿈인 세계챔피언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 과정이 매우 힘들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서 교수는 “제가 선택한 일은 의사이고, 저의 삶의 목표는 복싱입니다”며 웃었다.

아시아챔피언 벨트 두르고있는 서려경 교수 (사진: KBM제공)



SCH
ISS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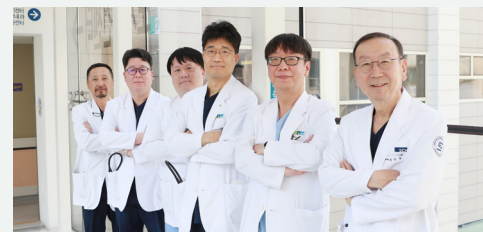
서울병원


“심장 수술 공백 메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6인 체제
**전문의 부족·필수의료 위기 속
중증 심장질환 진료 역량 강화**

심장질환은 대표적인 중증질환으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생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심정지, 대동맥 질환, 관상동맥 질환 등은 골든타임 확보 여부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신속하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고난도 수술과 높은 책임이 필요하다 보니 이를 담당하는 의료진이 점차 줄어들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심장 수술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가 의료진을 확충하고 중증 심장질환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는 기존 5인에서 6명으로 완전체를 이루었다. 김현조, 박영우, 장원호, 오홍철, 이재욱 교수에 이어 유경중 교수가 새롭게 합류하면서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으로 가꿨다. 유경중 교수는 심장 부정지 수술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난치성 심장질환 분야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6명의 의료진은 다양한 중증 심장질환 환자를 진료해 온 만큼 임상경험이 풍부하다. 또한 다년간 축적된 수술 경험을 바탕으로, 수술 전 진단부터 수술, 수술 후 집중 치료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맞는 정밀한 치료 전략을 수립하고, 치료 성과를 높이고 있다. 타 진료과와의 긴밀한 협진 체계도 구축했다. 심장내과를 비롯해 호흡기내과, 감염내과 등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 중심의 다학제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과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료 방향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환자 상태에 맞는 최적의 치료 전략을 구성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또한 중증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진료 의뢰부터 입원, 수술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도 개선했다.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 적시에 수술과 입원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는 윈스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심장과 외과계 중환자실을 중심으로 한 집중 치료 역량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심장,



왼쪽부터 순천향대서울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현조, 이재욱, 오홍철, 박영우, 장원호, 유경중 교수

폐 수술을 집도해 온 의료진이 직접 중환자 관리를 담당함으로써, 수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지역 및 전국 단위 병원을 찾아다니며 협력 네트워크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지역 병원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심장 수술이 필요한 환자를 신속하게 인계 받고, 즉각적인 수술이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장원호 심장혈관흉부외과 과장은 “앞으로 환자 의뢰 체계 강화와 진료 시스템 개선을 통해 중증 심장질환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심장흉부혈관외과 의료진의 풍부한 경험과 협진 시스템을 기반으로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H
ISSUE

서울병원


**간질환, 음주 넘어 대사이상까지
고려한 정밀 접근 필요**
순천향대서울병원, 알코올 간질환 통합 병태생리 종설 발표

간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 음주 여부뿐 아니라 비만, 인슐린 저항성, 이상지질혈증 등 대사이상 위험 요인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연구팀(류담 소화기내과, 이정운 신경과, 지영민 가정의학과 교수)은 알코올 관련 간질환의 새로운 질환 개념과 통합적 병태생리를 제시한 종설을 발표했다. 그동안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은 과도한 음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인식됐지만, 실제 임상에서는 대사 위험 인자가 동반된 경우가 흔했다.

연구팀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처럼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과 대사이상 관련 간질환(MASLD)을 단순히 구분하는 접근에서 나아가, 두 병태가 중첩된 ‘MetALD’ 개념에 주목했다.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은 대사이상을 기반으로 하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음주가 동반된 상태로, 알코올과 대사 스트레스가 동시에 작용해 간 손상과 섬유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연구팀은 기존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에서 중요한 기전으로 알려진 ‘장-간-뇌 축(gut-liver-brain axis)’을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까지 확대 해석했다.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에서는 알코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에 더해 인슐린 저항성, 지방 독성, 대사성 염증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장-간-뇌 축의 교란이 심화 될 수 있다.



왼쪽부터 류담 소화기내과 교수, 이정운 신경과 교수, 지영민 가정의학과 교수

아울러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 환자는 단일 원인 간질환보다 질환 진행 속도가 빠르고 예후가 불량할 수 있어, 기존 치료 전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담 교수는 “장-간-뇌 축은 알코올 관련 간질환(ALD)에서 중요한 병태생리로 알려져 있지만, 알코올과 대사이상이 중첩된 간질환(MetALD)에서는 간질환 진행뿐 아니라 전신 염증과 신경학적 영향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간질환의 이해와 치료에 있어 MetALD 개념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담 교수팀의 논문 ‘알코올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와 장-간-뇌 크로스 토크 : ALD에서 MetALD로 패러다임 확장(Alcohol-Induced Oxidative Stress and Gut-Liver-Brain Crosstalk: Expanding the Paradigm from ALD to MetALD)’은 "Antioxidants" 지에 2025년 10월에 발표했다. 

SCH ISSUE

부천병원


AI 기술로 더 안전한 입원 치료 환경 만든다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 도입
최신 AI 기반 의료환경 고도화 추진... '스마트 병원' 구축 본격화



의료진이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착용한 환자의 생체신호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있다.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착용 중인 환자와 의료진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AI 기반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씽크(thynC)'를 도입해 입원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지난 3월부터 5개 병동에 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도입해 시범 운영해 왔으며, 4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전 병동으로 확대 도입할 계획이다.

'씽크(thynC)'는 환자에게 웨어러블 센서를 부착해 심전도, 산소포화도 등 생체신호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입원환자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AI 기반 모니터링과 분석 기능을 통해 생체신호 이상 발생 시 현장에서 즉시 알람 확인 후 빠른 조치가 가능하며, 24시간 더 안전한 입원 치료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또한, 실시간 낙상 감지 알람 기능도 탑재돼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의료진의 반복적 업무 부담 줄여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에 집중

환자 관리 체계도 한층 강화됐다. 입원 기간 중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별 분석 리포트를 제공해 의료진이 환자 상태와 변화 양상을 더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환자별 위험도에 따라 이상 수치 발생 기준과 알람을 개별 설정할 수 있어, 환자 상태에 맞춘 모니터링과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의료진 업무 효율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기존에는 간호사가 병동을 돌며 활력징후를 측정하고 기록해야 했으나, 이 시스템은 측정 데이터를 전자의무기록(EMR)과 자동 연동해 의료진의 반복적인 업무 부담을 줄이고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 중인 의료 AI와의 연계 효과도 기대된다. 본 시스템으로 확보된 실시간 환자 정보는 2023년 도입한 '24시간 이내 심정지 발생

위험 예측 AI'의 환자 정보와 함께 신속대응팀에 실시간 공유된다. 이에 따라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대응팀이 즉시 출동해 병동 의료진과 함께 중증·응급 상황 대응 역량을 한층 높였다. 실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성과도 확인됐다. 한 병동은 상태가 불안정한 환자를 집중 모니터링 하던 중 무증상이었던 고령의 심방세동 환자를 조기에 발견했으며, 중환자실(ICU) 전실 및 약물치료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했다.

환자 편의성도 크게 높아졌다. 기존 모니터링 시스템은 유선 연결 방식으로 환자의 이동에 제약이 있고 무거운 송신기 착용 부담이 있었던 반면, 새로 도입한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슴 부착형과 손목 착용형 기기로 구성돼 가볍고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

문중호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은 "이번 시스템 도입은 입원환자 안전관리 수준을 한층 높이고, 의료진이 환자 상태를 더 신속하고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 의료 환경 구축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AI 기반 의료환경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SCH ISSUE

천안병원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

천안병원에 5월 10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지역 내 소아 응급 및 모자의료 운영 현황을 확인하고 현장 의료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홍종완 충청남도지사 권한대행 행정부지사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정은경 장관은 병원 6층 제1강당에서 간담회를 가진 뒤 지역모자의료센터, 고위험분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방문해 운영 상황과 진료체계를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소아응급환자 진료 프로세스와 중증응급환자 대응체계, 분만 및 신생아 집중치료 시스템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은경 장관은 “빈틈없는 소아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통해 의료진은 진료에만 전념하고, 아이들은 사는 곳에 관계없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문수 병원장은 “의료인력 확보와 운영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도 지역 내 필수 의료 부문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소아응급 및 모자의료체계 등 흔들림 없는 의료안전을 위해 지역완결형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안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대한민국 제1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지역모자의료센터를 운영하며, 소아응급 및 모자보건 의료서비스 등의 공공 및 필수의료 강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SCU



SCH ISSUE

충청 유일 '간암 방사선색전술' 시행



천안병원이 최근 충청 지역에서 유일하게 간암의 새로운 치료법인 '방사선색전술'을 시행하며 지역 간암 환자들에게 폭넓은 치료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

'방사선색전술'은 가느다란 카테터를 혈관에 삽입한 뒤, 방사선을 방출하는 미세한 구슬(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미세입자)을 간암으로 혈액을 공급하는 간동맥에 선택적으로 주입하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다.

모래알보다도 훨씬 작은 약 30마이크론 크기의 미세구슬은 종양 혈관을 따라 암 조직에 자리 잡고, 방사선(베타

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해 암세포를 손상시키고 괴사를 유도한다.

정상 간 조직에는 비교적 영향을 적게 주면서 종양에 방사선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전신 마취 없이 시행 가능하며, 절개가 필요 없는 최소침습 시술로 환자의 신체적 부담이 적고 회복이 빠른 편이다. 특히 고령이거나 동반 질환 등으로 수술이 부담스러운 환자에서 하나의 치료 옵션으로 고려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천안병원은 지난해 5월 새병원 개원 이후 영상의학과, 소화기내과, 핵의학과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바탕으로 치료 전 혈관 구조 등을 정밀하게 평가하고, 환자별 방사선 용량을 맞춤 설계해 정밀하고 안전한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병원에서 방사선색전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영상 평가를 통해 종양 괴사 유도와 크기 감소 등 효과적인 치료 반응이 확인되고 있다. 간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국소 종양 제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들의 만족도 또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술을 집도하는 이형남 영상의학과 교수는 “정밀한 치료 계획과 숙련된 시술 기법이 뒷받침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면서, “환자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고, 지역 내 간암 치료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ی겠다”고 말했다.

SCH ISSUE

구미병원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퇴직 교직원 모임 '순천향 아너스' 공식 출범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병원장 김성호)은 지난 4월 17일 호텔금오산에서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교직원들을 초청해 순천향 아너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퇴직 교직원 모임의 명칭을 '순천향 아너스(SCH Honors)'로 정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병원 성장 이끈 선배들의 헌신 되새기며... 세대 잇는 화합과 소통의 장 마련

이번 행사는 병원의 성장과 역사를 함께 만들어 온 퇴직 교직원들의 헌신과 노고를 되새기고, 선후배 간 교류와 화합의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퇴직 교직원과 병원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했던 추억과 경험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명예로운 발자취 위에 꽃피는 새로운 인연'이라는 의미를 담은 '순천향 아너스'는 병원 발전에 헌신한 선배 교직원들에 대한 예우와 감사의 마음을 바탕으로 새로운 인연과 화합을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을 넘어 병원의 역사와 가치를 공유하고, 선배들의 경험과 철학을 후배 세대와 연결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받았다. 행사는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내빈 소개 ▲김성호 병원장 인사말 ▲병원 비전 발표 ▲병원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회장단 선출 ▲명예 배지 증정식 ▲기념 촬영 ▲만찬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병원의 초기 시절과 성장

과정, 의료 현장에서 함께했던 다양한 일화들을 나누며 깊은 공감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특히 병원의 지난 역사를 영상과 함께 돌아보는 시간에는 오랜 세월 현장을 지켜온 선배 교직원들의 땀과 열정이 다시 조명되며 큰 감동을 자아냈다. 명예 배지 증정식에서는 병원 발전에 기여한 퇴직 교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은 배지가 전달됐으며, 참석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선배들의 헌신이 오늘의 순천향 만들어"

김성호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병원은 수많은 선배님들의 헌신과 노력 속에서 성장해 왔으며, 오늘의 발전과 성취 역시 선배님들의 땀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병원의 지난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함께 생각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라며 "선배님들의 경험과 지혜는 병원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후배들과 지속적으로 나누며 병원 발전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 퇴직 교직원은 "오랜만에 동료들과 후배들을 만나 병원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며 "병원이 지금처럼 성장한 모습을 보니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은 앞으로도 병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퇴직 교직원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소통의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

수면무호흡 수술 치료, 깊은 잠 잘 자고 자주 안 깨는 환자가 유리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동연 교수팀, 수면 수술 치료 효과 예측 지표 발표



폐쇄성수면무호흡증 수술시 수면다원검사를 통해 깊은 수면의 비율과 수면 중 각성 정도를 함께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연구가 나왔다. 특히 깊은 수면 비율이 높고, 수면 중 자주 깨지 않는 환자일수록 수술 효과가 좋았다. 폐쇄성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 기도의 부분 폐쇄, 또는 완전한 폐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다.


수면 중 저산소증 또는 무산소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수면 질 저하와 만성질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 이동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팀은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수면 수술의 치료 효과를 예측 할 수 있는 지표를 확인하기 위해, 수술 전 시행한 수면다원검사 결과와 약물 유도 수면 내시경 소견이 수술 후 경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석했다.

수면다원검사 결과가 수술 예후 좌우

대상은 수술 전후 수면다원검사와 약물 유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모두 받은 성인 폐쇄성 수면무호흡 환자 56명이었다. 수술 후 무호흡과 저호흡의 빈도가 시간당 20회 이상 감소한 환자들을 호전군으로 분류했고, 시간당 20회 이상 증가한 환자는 악화군으로 구분했다. 분석 결과, 호전군은 악화군에 비해 수술

전 무호흡과 저호흡의 빈도가 더 높았고, 편도 크기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유도 수면내시경에서 확인한 기도 폐쇄 양상이나 정도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수면 다원검사에서는 호전군이 비렘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더 높았고, 수면 중 각성 빈도는 더 낮았다. 또한 호흡 이상이 렘수면보다 비렘수면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다변량 분석에서도 수면 중 깊은 수면 단계의 비율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면 중 각성이 적을수록 수면 수술의 결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깊은 잠 비율 높을수록 수술 효과 좋아”

이동연 교수는 “수면무호흡 환자에서 흔히 시행하는 수면다원검사와 수면내시경 검사 결과를 분석해, 어떤 환자에게 수면 수술의 효과가 더 좋은지를 확인한 연구”라며 “수면 내시경 검사는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데에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검사이지만, 수술 후 결과를 예측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수면다원검사에서는 깊은 잠의 비율이 높고, 수면 중 각성이 적은 환자일수록 수술 결과가 더 좋은 경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동연 교수팀의 논문 ‘수면무호흡증 수술 효과를 예측하는 수면 검사 지표 연구(Predictive Value of Sleep Architecture and Arousal Index for Surgical Outcomes in Obstructive Sleep Apnea)’는 이비인후과 학 학술지 Laryngoscope Investig Otolaryngol 에 게재됐다. 



이동연 순천향대서울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혈액암, 급성골수성백혈병 조기 진단·신속한 치료가 중요



급성골수성백혈병은 대부분 특별한 전조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혈액암으로,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병이 빠르게 진행되는 특징을 가진다. 골수에서 정상적인 혈액세포 대신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빈혈, 감염, 출혈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키며 환자의 전신 상태를 빠르게 악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무엇보다 조기 진단과 신속한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급성골수성백혈병에서 급성이라는 표현은 질환의 진행 속도를 의미한다. 치료하지 않을 경우 수주에서 수개월 이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병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령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빈혈·감염·출혈 등 다양한 증상 동반


급성골수성백혈병은 골수 내에서 발생한 비정상적인 백혈병 세포가 정상 혈액세포의 생성을 방해하면서 문제를 일으킨다. 적혈구가 감소하면 쉽게 피로를 느끼고 숨이 차는 빈혈 증상이 나타나며, 백혈구 기능이 떨어지면 감염에 취약해져 발열이나 반복적인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혈소판 감소로 인해 멍이 잘 들거나 코피, 잇몸 출혈 등 출혈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진단 과정에서는 혈액검사를 통해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지만, 확진을 위해서는 골수검사가 필수적이다. 골수검사

를 통해 백혈병 여부뿐만 아니라 질환의 아형과 유전적 특성 등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치료 선택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표적치료제 등장으로 치료 환경 변화

치료의 기본은 항암치료를 통해 백혈병 세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치료가 이어지며, 환자의 나이와 전신 상태, 질병의 특성에 따라 치료 전략이 달라진다. 특히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의 경우 완치를 목표로 조혈모세포이식이 고려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나 경구 치료제 등 환자 상태에 맞춘 다양한 치료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치료 환경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기존에는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가 좋지 않은 환자에서 치료 선택지가 제한적이었지만, 표적치료제와 저강도 치료제(경구 약제 포함)가 개발되면서 치료 성적이 점차 향상되고 있다.

윤석윤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는 “급성골수성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누구나 두렵고 막막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많은 환자들이 치료를 통해 회복하고 있다”며 “혼자 고민하기보다 의료진과 충분히 상의하며 치료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의심 증상이 있다면 늦지 않게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윤 순천향대서울병원 중앙혈액내과 교수



진통제로 조절 안되는 생리통, 단순 통증 아닌 '자궁내막증' 신호일 수도

월경 시작 전부터 기간 내내 하복부나 골반 중심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면 🔍



직장인 P씨(30세, 여성)는 10대부터 심한 생리통을 겪어왔다. 최근에는 진통제로도 조절되지 않는 것은 물론 성교통과 생리 시 배변통까지 생겼다. P씨는 산부인과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자궁내막증' 진단을 받았다.

진통제로 조절되지 않을 정도로 심한 생리통을 겪고 있다면 단순한 생리통이 아닌 '자궁내막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자궁내막증은 자궁 안에 있어야 할 내막 조직이 복강이나 난소, 장 등 다른 부위에 자라는 질환이다. 다른 부위에 내막 조직이 있어도 생리 주기와 함께 출혈과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리통보다 통증이 심하다. 자궁내막증은 일반적인 생리통과 달리 월경 시작 전부터 통증이 나타나 생리 기간 내내 지속되며, 하복부나 골반을 중심으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반복된다. 그리고 성관계 시 성교통, 월경 중 배변 시 배변통이 있을 수 있다.

자궁내막증의 유병률은 가임기 여성의 10~15%로 추정되며, 난임 여성에서는 25~35%로 알려졌다. 문제는 만성 염증으로 인해 난소와 나팔관 주변에 유착이 생기면서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난소에 생기는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난소에 생기는 낭종을 '자궁내막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자궁내막종이 난소 기능을 저하시켜 난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완치보다 관리'... 재발 가능성 큰 자궁내막증

자궁내막증의 치료는 증상을 완화하고 병변 제거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환자의 나이, 증상, 임신 계획 등을 고려해 호르몬 억제 약물 요법과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다. 난소에 생긴 자궁내막종 크기가 작거나, 환자의 나이가 매우 어리거나, 전신 상태가 수술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다. 수술은 로봇과 복강경 수술을 고려하며, 로봇수술의 경우 작은 절개창을 통해 360도 회전이 가능한 로봇팔을 넣어 정밀하게 수술하기 때문에 미세 출혈과 조직 손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어 더 선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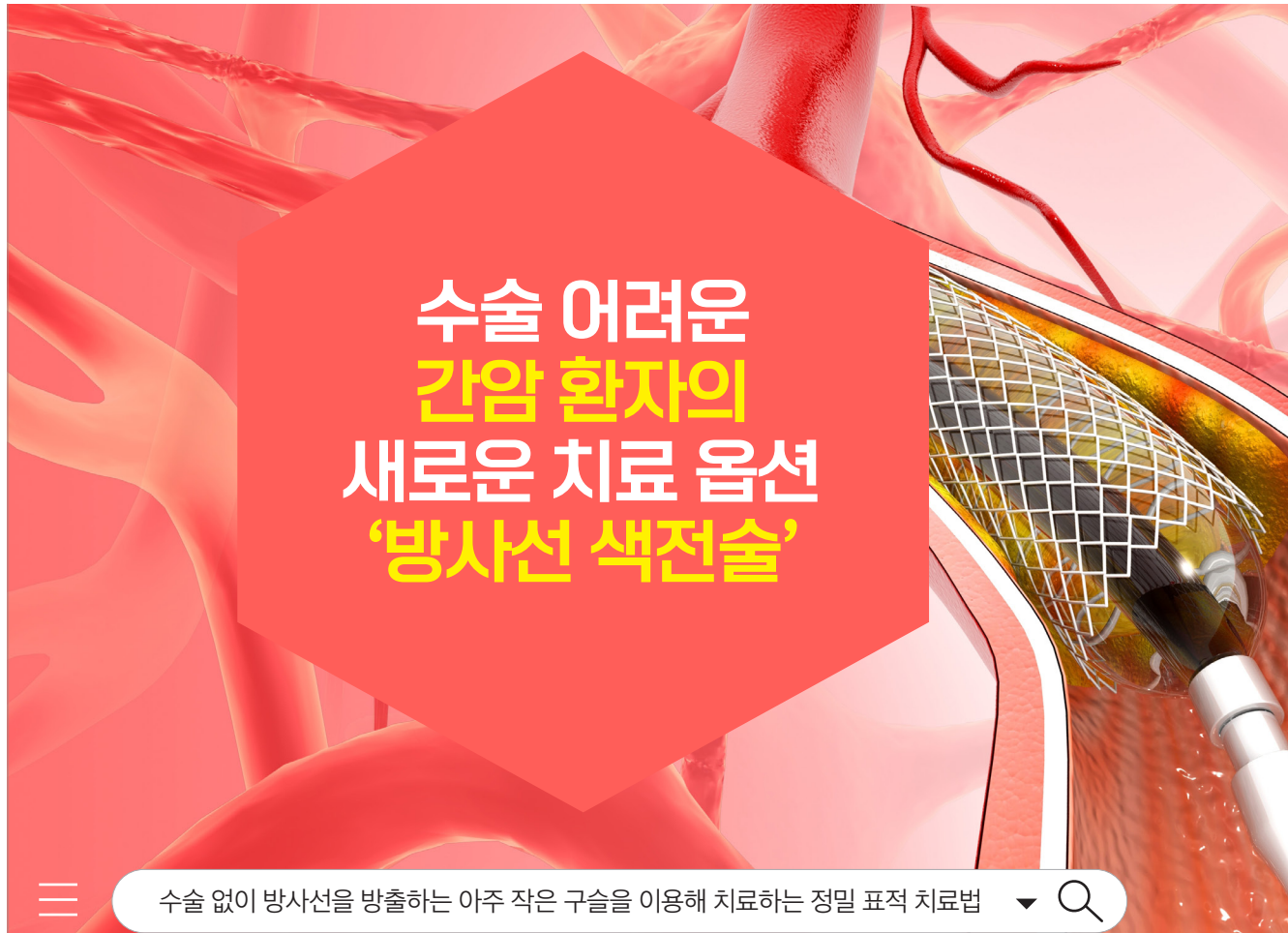
여성호르몬에 반응하는 자궁내막증의 특성상 재발 가능성이 높아, 수술 후에도 호르몬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많다. 수술 후 임신 계획이 있는 환자의 경우 여성호르몬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 시 임신 유지가 어려울 수 있어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다. 임신 중에는 여성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자궁내막증의 진행이 억제되어 호전될 수 있다. 따라서 임신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신을 먼저 시도하는 것을 추천한다.

생리통, 참지 말고 검사... 초음파로 조기 확인 가능

자궁내막증을 진단하려면 증상 청취 후 질 초음파 및 골반 내진을 진행한다. 초음파로 발견이 어렵다면 자궁내막증 관련 'CA 125'라는 표지자 수치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그 외 MRI나 CT 영상 촬영 검사를 시행해 골반 복막 아래쪽 깊숙한 곳에 자궁내막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평소와 달리 생리통이 심하고 약물로 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조기에 병원을 찾아 검사받고 치료할 것을 권장한다. ■



상재홍 순천향대 부천병원 산부인과 교수



간암 진단은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큰 어려움을 안겨준다. 다양한 치료법 중에서 어떤 치료가 가장 적합할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다. 최근 간암 치료의 중요한 선택지 중 하나로 방사선 색전술이 주목받고 있다.

방사선색전술이란?

영상의학과에서 시행하는 방사선 색전술은 수술 없이 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카테터를 삽입한 뒤, 방사선을 방출하는 아주 작은 구슬, 즉 미세구를 이용하여 간암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정밀 표적 치료법이다.

이 구슬은 크기가 약 30마이크론 정도로 모래알

보다도 훨씬 작은 크기의 미세구이며, 간암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간동맥이라는 혈관을 통해 주입된다. 주입된 미세구는 간암의 혈관을 따라 암 조직 안에 자리 잡고 수 주 동안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게 된다. 이 방사선은 암세포의 DNA를 손상시켜, 암 조직을 서서히 괴사시키는 방식으로 치료 효과를 나타낸다.

암 조직만 정조준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 몸 밖에서 방사선을 쬐는 외부 방사선 치료를 떠올린다. 이 방법은 효과적인 치료이지만, 방사선이 통과하는 경로에 있는 정상 조직에도 함께 전달되는 한계가 있다. 즉, 정상 간뿐 아니라 주변 장기나 조직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방사선의 용량에 제한이 있다.

반면 방사선 색전술은 방사선 물질이 암 내부에 머물면서 아주 짧은 거리에서만 방사선을 방출하기 때문에 외부 방사선 치료보다 훨씬 높은 용량의 방사선을 암 조직에 집중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암으로 가는 간동맥을 혈관조영술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확인하면서, 그 혈관 안으로 정확히 찾아 들어가 방사선 물질을 전달하기 때문에 암 조직을 선택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다. 간의 혈류 특성과 정밀한 혈관 시술 기술을 이용하여 암을 선택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방사선 색전술의 중요한 원리이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에 따라 치료 결정

방사선 색전술은 크게 두 가지 상황에서 고려된다. 이때 종양의 크기와 위치는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첫 번째는 종양이 한쪽 간에 국한되어 있어 암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싶지만, 고령이거나 전신 상태 때문에 수술이 부담스러운 경우이다. 이런 경우 방사선 색전술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병변이 넓게 퍼져 있거나 양쪽 간에 걸쳐 있는 경우로, 암을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지만 암의 진행을 늦추고 병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사선 색전술을 시행하게 된다.

부담 적어, 고령 환자도 가능

방사선 색전술은 전신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비교적 몸에 부담이 적은 시술이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서도 시행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간암 환자분들 중에는 간경변이 동반된 경우가 많아, 무엇보다도 남아 있는 간 기능이 충분한지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한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혈액검사를 통해 빌

리루빈 수치나 간 효소 수치를 확인하고, 황달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영상 검사를 통해 복수가 있는지 함께 평가한다. 만약 간 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다고 판단되면, 다른 치료 방법을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서서히 손상 및 괴사시켜

방사선 색전술의 효과는 수술처럼 즉각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방식은 아니다. 방사선이 암 조직 안에서 수 주에 걸쳐 작용하면서 암세포를 서서히 손상시키고 괴사를 유도하게 된다. 따라서 보통 치료 후 1~3개월 사이에 영상 검사를 통해 효과를 평가한다. 이때 종양의 크기 감소뿐 아니라, 종양 내부가 얼마나 괴사 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한다. 또한 혈액검사에서 종양 표지자 수치가 감소하거나, 기존 증상이 완화되는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수술 어려운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

간암 치료는 '한 가지 정답'이 있는 질환이 아니다. 환자의 간 기능, 암의 위치와 범위, 전신 상태에 따라 가장 적합한 치료 전략은 달라진다. 간암 치료의 목표는 단순히 암의 크기를 줄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 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방사선 색전술은 수술이 어려운 환자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에서는 간암 다학제 진료를 통해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고 있다.



이형남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당뇨발, '절단'이 아닌 '보존'의 시대로

다학제적 협진과 성형외과적 재건의 역할



당뇨 환자의 약 15-25%가 평생 한 번은 겪게 되는 당뇨병성 족부궤양(당뇨발)은 단순한 상처를 넘어서는 질환이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 하지 절단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요 절단 후 5년 생존율은 일부 암보다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의학적 근거들은 이제 당뇨발 치료의 방향이 '절단'이 아닌 '보존'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다학제적 팀 접근: 보존을 향상의 핵심

세계적인 당뇨발 가이드라인인 IWGDF 2023은 혈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내분비내과 등이 참여하는 '다학제적 팀' 구성을 치료의 핵심 권고 사항으로 제시한다. 이는 '절단 회피'를 넘어 '보행 기능 유지'를 치료의 최종 목표로 삼는 방향으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치료 시너지와 패스트 트랙: 혈관외과의 혈류 개선, 내분비내과의 혈당 조절, 감염내과의 항생제 치료, 그리고 성형외과의 조직 재건이 함께 이루어질 때 치료 기간은 크게 단축될 수 있다. 이러한 '패스트트랙' 접근은 진료 과정 사이에서 소모되는 시간을 줄여 조직의 괴사를 막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통합 진료의 실질적 성과: 연구에 따르면 다학제적 통합 진료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주요 하지 절단율을 50%에서 최대 80%까지 감소시킬 수 있음이 입증되었다. 이는 협진이 단순한 협조를 넘어 환자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중요한 치료 체계임을 보여준다.

오소플라스틱(Orthoplastic) 모델: 성형외과는 단순히 상처를 덮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보행 시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조직을 재건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정형외과적 골 고정과 성형외과적 연부조직 재건이 결합된 오소플라스틱 접근법은 단순한 상처 폐쇄를 넘어 환자가 다시 체중을 싣고 걸을 수 있게 하는 '기능적 복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성형외과의 역할:

'재건 사다리'를 넘어 '재건 엘리베이터'로

과거의 재건 방식이 단계별로 접근하는 '재건 사다리'였다면, 현대 성형외과는 환자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를 즉각 적용하는 '재건 엘리베이터' 모델을 지향한다.

근본적 변연절제 및 감염 제어: 괴사 조직을 신속하고 철저히 제거하는 과정은 모든 재건의 기초가 된다. 건강한 조직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하여 괴사 조직을 제거함으로써, 감염율을 낮추고, 재건 수술의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미세수술적 재건과 기능 보존: 말초 혈관 질환으로 자가 치유 능력이 저하된 당뇨발 환자에게 유리피판술(Free Tissue Transfer)은 하지 보존을 위한 최선의 해법이다. 등이나 허벅지 등에서 채취한 건강한 혈관과 연부조직을 이식해 결손 부위에 충분한 두께의 조직을 재건한다. 이는 보행 시 압력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게 해주며, 단순 피부 이식의 한계를 넘어 궤양 재발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맺음말: 보행의 가치를 지키는 하지 보존의 새로운 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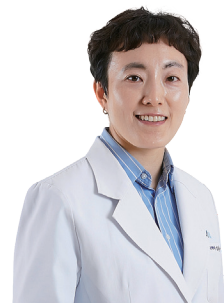
당뇨발 치료의 패러다임은 이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적극적 재건을 통한 보행 기능 회복'으로 진화하고 있다. 성형외과적 재건 술기와 다학제적 협진의 결합은 환자에게 '다시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되찾아주는 해법이다. 따라서 발에 나타난 미세한 이상 징후를 조기에 식별하고 전문적인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속히 개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하지 보존을 넘어 환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김세영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성형외과 교수

『우리 아이 발달 늦은 걸까요?』

부모 불안 덜어줄 실용 가이드 전자책



저자 김수아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라면 한 번쯤 “우리 아이, 혹시 발달이 늦은 건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지기 마련이다. 인터넷과 주변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지만,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불안을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실용적인 안내서가 출간돼 주목받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김수아 교수.

영유아 발달 궁금증 풀어주는 전자책 발간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재활의학과 김수아 교수가 영유아 발달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을 체계적으로 풀어낸 전자책 『우리 아이 발달 늦은 걸까요?』를 발간했다. 이번 전자책은 발달 과정에서 흔히 나타나는 다양한 상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막연한 걱정이 아닌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 아이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이 책은 단순한 이론 설명을 넘어 실제 임상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구성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언어 발달, 인지 발달, 신체 성장 지연 등 부모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각각의 발달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과 주의해야 할 신호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지켜봐도 되는 시기”와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시

기”를 명확히 구분해 부모들이 불필요한 불안을 줄이고, 필요한 순간에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책의 구성 역시 실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발달 지연이 의심되는 주요 신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비롯해, 월령·연령별 발달 기준표를 통해 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손쉽게 아이의 발달 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병원 방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과 검사 및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도 포함돼 있어, 처음 병원을 찾는 부모들에게 현실적인 길잡이 역할을 한다.

재활의학 전문의와 언어 병리학 박사가 알려주는 아이 발달 체크 가이드

무엇보다 부모들이 실제로 자주 묻는 질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풀어낸 점이 눈에 띈다. “말이 늦으면 모두 치료가 필요한가?”, “또래보다 키가 작는데 괜찮은가?”, “걷는 시기가 늦어도 기다려도 되는가?”와 같은 질문에 대해, 단순한 답변이 아닌 상황별 판단 기준과 대응 방법을 함께 제시해 이해도를 높였다. 이를 통해 부모들이 막연한 정보에 의존하기보다,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아이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유도한다.

김수아 교수는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발달 속도를 두고 불안을 느끼지만, 정확한 기준을 접할 기회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며 “이 책은 그런 부모들에게 ‘기다려도 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이 필요한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필요한 걱정은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언어·인지·성장지연까지...시기별 체크리스트와 병원 방문 기준 제시

전문가들은 영유아 발달에서 ‘조기 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 발달 지연은 빠르게 발견할수록 치료 효과가 높고, 아이의 장기적인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전자책은 이러한 관점에서 부모들이 일상 속에서 아이의 변화를 민감하게 관찰하고, 필요한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실용적인 지침서로 평가된다.

한편 『우리 아이 발달 늦은 걸까요?』는 주요 온라인 서점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열람할 수 있으며,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점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이번 전자책이 육아 현장에서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지 주목된다.





"머리 허연 늙은이가 무슨" 그래도 92세 엄마와 함께 본 연극

글. 윤태정

“늙으면 아무것도 아니여.”

얼마 전 엄마가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방에 홀로 누워 계시던 외할아버지를 누군가 문만 열어본 채 “아무도 없네” 하고 돌아섰다는 이야기였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던 기억. 그 말을 하는 엄마의 목소리에는 노년의 쓸쓸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 오 남매는 마음속으로 약속했다. 어떤 순간에도 엄마를 가족의 중심에 두자고. 그리고 엄마가 건강하게 걸을 수 있고 충기가 좋을 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게 해드리자고 말이다.

2026년 어버이날을 앞두고 문득 엄마의 삶을 돌아봤다. 엄마에게 과연 ‘문화생활’이라는 것이 있었을까. 평생 자식 걱정 속에서 살아온 삶이었다. 옷이나 현금을 선물하는

대신 올해는 특별한 시간을 드리고 싶었다. 그래서 집 근처 LG아트센터 서울에서 공연 중이던 연극 내 엄마의 장례식: 더 쇼를 함께 보기로 했다. 미국에서 엄마를 돌보러 들어온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엄마 모시고 연극 보러 가자”고 했더니 흔쾌히 동의했다. 하지만 정작 엄마는 손사래를 치셨다.

“머리 허연 늙은이가 무슨 연극을 본다니”

자식들 귀찮게 하기 싫어 늘 한발 물러서는 엄마다운 반응이었다. 사실 내가 이 연극을 고른 이유는 단순히 공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우리 가족은 죽음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 연명 치료로 힘들어하시던 아버지를 지켜본 엄마는 “나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늘 말씀하셨다. 납골당보다는 산에 뿌려달라는 유언도 이미 남기셨다. 요양원보다는 집에서 가족 곁에 있고 싶다는 바람도 분명히 하셨다. 죽음을 두려움으로만 숨기지 않고, 삶의 마지막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이었다. 매일 새벽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우며 기도하는 엄마의 바람 역시 결국은 하나였다. 가족들 곁에서 조용히 눈 감고 싶다는 소망이었다.

공연장은 원형 무대로 꾸며진 소극장이었다. 맨 앞줄 가운데 엄마를 앉히고 우리 자매가 양옆을 지켰다. 공연이 시작되자 배우들이 객석 가까이 다가와 관객과 눈을 맞췄다. 엄마 역 배우가 엄마에게 다가와 손을 잡고 인사하는 순간, 긴장이 스르르 풀렸다. 객석에서 하얀 머리를 한 관객은 엄마뿐이었지만, 배우는 누구보다 따뜻하게 엄마를 환영해주었다. 그 순간만큼은 엄마도 누군가의 배려와 존중을 온전히 받는 한 명의 관객이었다.

연극은 엄마의 장례비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딸의 이야기였다. 장례를 ‘쇼’처럼 만들어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속에서, 딸은 엄마의 존엄과 화려한 장례 사이에서 갈등한다. 그러다 극 중 죽은 엄마가 딸에게 말한다.

“네가 어떤 장례식을 해주든 나는 몰라. 이미 죽었잖아. 너는 너의 주관을 잃지 마.”

그 대사는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평생 가족만 위해 살

아온 우리 엄마의 존엄은 얼마나 많이 깎이고 무너졌을까 생각했다. 그리고 앞으로는 엄마의 삶을 더 빛나게 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나이가 든다는 이유만으로 뒤로 밀려나가거나, 조용히 사라져야 하는 존재처럼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도 깊어졌다. 1시간 40분 동안 엄마는 젊은 관객들 틈에서 함께 웃고 울었다. 손뼉을 치고 큰소리로 웃는 모습을 보니 참 행복했다. 공연이 끝난 뒤에는 뜻밖의 행운도 찾아왔다. 주차장에서 엄마 역할을 맡은 이정미 배우를 만난 것이다. 배우는 멀리서 엄마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와 두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연극 재미있게 보셨어요?” 엄마는 환하게 웃으며 “그럼유”라고 답하셨다. 엄마가 아흔둘이라는 말에 배우는 눈시울을 붉혔다.

“공연하면서 저희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칭찬했다. “배우님이 어찌면 그리 엄마 역할을 잘하시대유.” “어머님은 어찌면 이렇게 건강하세요?”

건강 비결을 묻자, 엄마는 “자식들이 잘해줘서 그렇다”고 우리를 바라보셨다. 순간 웃음이 터졌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엄마의 표정이었다. 배우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당당히 표현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다. 동생과 나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괜히 마음이 몽클해졌다. 세월은 엄마의 몸을 늙게 했을지 몰라도, 사람을 사랑하고 응원하는 마음만큼은 아직도 젊고 따뜻했다.

헤어질 때 배우가 “건강하세요”라고 인사하자 엄마는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크게 외치셨다.

“꼭 성공허슈!” 누가 이런 엄마를 늙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연극 속 딸은 엄마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그리고 현실 속의 나는, 이날의 연극 나들이를 통해 엄마의 ‘존재’를 다시 확인했다. 어찌면 올해 어버이날 최고의 선물은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엄마가 여전히 삶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느낀 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은 하나다. 엄마가 더 늦기 전에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걷고, 더 많이 세상을 느낄 수 있도록 곁에서 손을 잡아드리는 것. 그것이 결국 자식이 부모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따뜻한 사랑일 것이다. ■■■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 “의료융합 글로벌 수도 도약”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4월 2일 교내 인간사랑관 대강당에서 건학 48주년을 맞아 ‘글로벌대학 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의의료



융합 분야 글로벌 선도대학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등 고등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해 대학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글로벌대학 사업 추진 방향을 대내외에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천향대학교는 비전 선포를 통해 “지역과 함께 세계로! 의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TOP1”을 목표로 제시하고, ‘의의료융합 글로벌 수도 구현’을 핵심 전략으로 발표했다. 대학은 이를 위해 의료 기반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의의료융합 분야를 중심으로 인재 양성, 산업 생태계 구축,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AI중심대학 선정... ‘AI 생태계 선도대학’ 도약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추진하는 2026년도 인공지능(AI) 중심대학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은 단순한 국책사업 수주를 넘어, 순천향대학교가 추진해 온 다양한 AI 관련 사업과 교육혁신 성과가 결집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AI중심대학 선정으로 순천향대는 대한민국 대표 AI 혁신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순천향대는 AI를 중심축으로 한 국가사업을 연이어 유치하며 대학 전반의 경쟁력을 빠르게 끌어올려 왔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AI중심대학 선정을 비롯해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AI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AI-바이오 융합) ▲글로벌대학 30 등 주요 혁신과제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며 대학 AI 생태계 구축의 완성 단계에 들어섰다. 순천향대의 가장 큰 강점은 AI를 특정 학과나 일부 분야에 한정하지 않고, 전교생을 포함한 대학 전체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확장했다는 점이다. 교육 분야에서는 AI중심대학 사업을 통해 AI 전공 심화교육과 전교생 AI 기초역량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고, 연구 분야에서는 순천향대가 보유한 의료 인프라와 바이오 특성화를 기반으로 AI 신약개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데이터 분석 등 미래 유망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창업 분야에서도 AI 기반 창업지원 플랫폼과 학생 창업 프로그램을 강화해 기술사업화와 스타트업 육성까지 연결하는 혁신 구조를 갖춘다. 이번 AI중심대학 선정으로 순천향대는 앞으로 8년간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AI G3 도약을 이끄는 핵심 대학으로서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AI전문·AX융합 인재 양성 및 AI 고급인재(석·박사) 유입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

“2,800여 명이 함께한 출발”... 2026학년도 신입생 Camp1978 성료

순천향대학교는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강원 홍천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 Camp1978’을 개최했다.



이번 캠프는 대학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첫발을 내딛는 신입생들이 학업과 대학 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순천향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함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Camp1978에는 신입생 약 2,400명을 비롯해 재학생 350명, 교원 70명 등 총 2,820여 명이 참여했다. 단과대학 학장 9명과 60개 학과별 신입생 지도교수가 함께해 신입생들과 밀착 소통을 이어갔다. 교수와 학생이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환경 속에서 신입생들은 대학생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순천향 공동체의 일원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순천향대, 어기구 국회의원에 명예정치학박사 학위 수여

순천향대학교(총장 송병국)는 제20·21·22대 3선 국회의원이자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에 명예정치학박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명예박사 학위 수여는 국가 산업정책 발전과 농업·해양수산 분야 구조 혁신,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협력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로를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 발전 측면에서도 교통산업환경 교육 분야의 국가사업 유치와 대규모 국비 확보를 통해 당진 지역의 성장 기반을 확충했으며, 2026년도 국비 5,212억 원을 확정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뤘다. 이와 함께 국제 협력과 경제 외교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도 기여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및 국제회의 참여, K-푸드 수출 확대 논의, 대통령 특사로서의 해외 활동 등을 통해 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어기구 의원은 “순천향정신 ‘인간사랑’ 처럼 정치는 인간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국민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명예박사 학위를 기쁨에 새기고 그 책임을 다하는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어기구 의원은 순천향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동문으로, 오스트리아 빈 국립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및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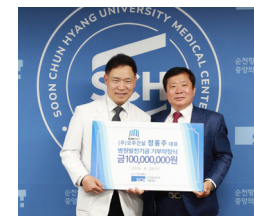
개원52주년 기념 '환자가 가장 존중 받는 순천향' 다짐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병원장 이성진)은 4월 2일 개원 52주년을 맞아, 동은대강당에서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을 겸한 기념식을 갖고, ‘환자가 가장 존중받는 순천향대병원’을 다짐했다. 병원발전기금 전달식에서는 이현욱 ㈜상훈유통 회장이 병원발전기금 2억 원을 쾌척하며 개원 52주년을 축하했고, 이어서 열린 개원기념식은 장기근속 및 모범직원 표창 수여, 승진 교원 임명장 수여, 기념사 순으로 진행했다.



㈜오주건설 정홍주 대표, 병원 발전기금 1억원 기부약정

(주)오주건설 정홍주 대표가 4월 15일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을 찾아 발전기금 총 1억원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정홍주 대표는 건강과 학CEO과정 37기를 수료하고 순천향과의 인연을 이어왔다. 기부금은 병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2026년 IP스타과학자 지원형 및 상반기 국책과제 선정

순천향대서울병원이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이 지원하는 IP스타과학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가 지원하는 국책과제에 대거 선정됐다. 지원형 과제에는 김재현 비뇨의학과 교수가 선정됐으며, 상반기 우수 신진 연구자 사업에는 윤석윤 중앙혈액내과 교수, 류담 소화기내과 교수, 이은지 영상의학과 교수, 유대광 외과 교수, 이정윤 신경과 교수, 김정현 알레르기면역내과 교수가 선정됐다. 이번 선정된 연구비 규모는 총 9억 3천여만 원에 달한다.

순천향대서울병원 간호부, 바자회 수익금 777만원 기부

순천향대학교서울병원 간호부가 4월 15일 원내 향실 교육관 지하1층에서 바자회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금은 지난 1일 순천향대서울병원 개원52주년을 맞아 간호부에서 마련한 바자회에서 모인 수익금이다. 기부금은 총 777만원으로 의료취약계층 환자들의 의료비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순천향대서울병원, 2026년 소방훈련 성료

순천향대서울병원이 4월 17일 원내 서별관에서 2026년 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원내 자위소방대 대원 등 100여명이 참여했으며, 화재발생시 신속한 소화활동 및 인명구조와 특수 병동 화재발생 시 인명구조 및 대피활동 등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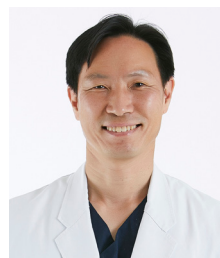
개원 25주년 기념, 새 핵심가치 '의학연구 선도' 발표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4월 2일 향설대강당에서 '제25주년 개원기념식'을 열고, 새 핵심가치 '의학연구 선도'를 발표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병원장 기념사를 비롯해 임명장 수여와 병원 발전에 이바지한 직원 표창이 진행됐다. 임수재 정형외과 교수 등 196명이 '장기근속 표창', 노현 응급의학과 교수 등 19명이 '모범직원 표창'을 받았다.



김준모 비뇨의학과 교수, '경기도지사 표창' 수상

김준모 비뇨의학과 교수가 최근 열린 '제80차 경기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김준모 교수는 남성 및 소아 건강 증진



에 힘쓰는 한편, 경기도 내 의학 교육 및 연구 환경 개선에 앞장서 보건의로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 교수는 "그동안 진료와 연구, 교육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학생과 전공의, 교수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는 지역 내 연계를 통해 부천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문중호 병원장, '제19대 대한체장담도학회 이사장' 취임

문중호 병원장이 최근 '제19대 대한체장담도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4월부터 2년간이다. 문중호 신임 이사장은



체장 및 담도·담낭 질환의 진단과 치료 내시경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인 권위자다. 현재 병원장으로서 병원 발전과 지역사회 의료 질 향상에 힘쓰고 있는 문 신임 이사장은 "대한체장담도학회 신임 이사장으로서 학회 임원진 및 회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장·담도학 발전과 국민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영구 정형외과 교수, '제마스포츠의학상' 수상

이영구 정형외과 교수가 최근 열린 '대한스포츠의학회 제68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최우수 논문상인 '제마스포츠의학상'을 수상했다. '제마스포츠의학상'은 대한스포츠의학회가 1년 동안 국내 스포츠의학 발전에 기여한 업적과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제마'는 국내 스포츠의학 발전에 큰 업적을 남긴 하권익 교수의 호를 본따 제정됐다. 이 교수는 '발목 인대 완전 파열 환자에서 봉합사-버튼 기법을 이용한 원위경비인대 복원술과 나사 고정술의 안정성에 대해 사체를 이용한 비교 연구'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응진 대장항문외과 교수, '제34회 JW중외박대상' 수상

신응진 대장항문외과 교수가 최근 '제34회 JW중외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



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만든 상이다. JW중외제약은 신 교수가 코로나19 당시 순천향대 부천병원장으로서 수도권 민간 상급종합병원 가운데 최초로 거점 전담병원 참여를 자청하는 등 중증 환자 치료에 힘썼고, 의료계 갈등 국면에서도 필수 의료 유지와 지원에 힘쓰며 국민 건강권 보호에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개원 44주년 기념, 발달장애 청년 합창단 초청 음악회 개최

천안병원이 병원 개원 44주년을 기념해 1층 로비에서 발달장애 청년들로 구성된 'E&I 합창단'을 초청해 음악회를 개최했다. 2017년 볼레드(VOLED) 합창단으로 시작해 2025년 3월부터 E&I로 명칭을 변경해 활발한 공연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E&I 합창단'은 EBONY(검은 건반)와 IVORY(흰 건반)의 조화를 의미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간다는 뜻을 담고 있다. 합창단은 △홍은 날 △단발머리 △바람의 노래 △새야 새야 파랑새야 △아리랑 연곡 등 다양한 곡이 병원 로비에 울려 퍼지며 모두가 잠시 아픔과 걱정을 내려놓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이어졌다.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 대한정신약물학회 회장 취임

정신건강의학과 심세훈 교수가 대한정신약물학회 제24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6년 3월부터 2년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는 국내 정신약물 연구와 치료의 발전을 선도해 온 학술단체로 지난 40여 년 동안 정신의학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학회는 또 우울장애, 양극성장애, ADHD 등 다양한 정신건강 관련 질환 및 약물에 대한 과학적·임상적 연구를 수행하고, 효과적인 치료 전략을 모색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순천향대 의대를 졸업한 심세훈 교수는 동 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실 주임 교수로 취임해 △자살 예방 사업 및 자살행동과 관련된 뇌 신경학적·유전적 예측 인자 연구 △청소년의 '비자살적 자해 행동'에 대한 심리학적 요인과 뇌 신경생리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ADHD에서의 약물치료 등의 굵직한 연구를 수행하며, 정신의학 분야 다수의 연구 업적을 이뤘다.



산부인과 김윤숙 교수, '중근당 존경받는 병원인상' 수상

산부인과 김윤숙 교수가 제16회 존경받는 병원인상 시상식에서 병원인 부분 수상자로 선정됐다. '존경받는 병원인상'은 대한병원협회가 병원에 발전에 공로가 큰 병원 CEO와 병원문화 창달 및 병원 시스템 개선에 크게 기여한 병원인을 선정해 시상하는 상이다. 김윤숙 교수는 2004년 천안병원에 부임해 지난 20여년간 고위험 산모 진료와 지역 모자보건 체계 구축에 헌신해왔다. 특히 고령 산모와 다태아 출산 증가에 대응해 고위험 임신클리닉을 운영하며, 지역 산모들이 원정 진료를 떠나지 않고도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협회는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을 지키는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지역 분만 인프라를 지키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 공로로 김윤숙 교수를 선정했다.



중앙의료원 Q페스티벌 개최

천안병원에서 '2026년 중앙의료원 Q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Q 페스티벌은 순천향대학교 중앙의료원 산하 부속병원(천안·서울·부천·구미)이 지난 1년간의 의료 질 향상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순천향대 중앙의료원과 부속병원 주요 보직자 및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Q페스티벌에서는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 병원의 미래 경쟁력(구호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사업총괄본부장)'이란 주제강연을 시작으로 두 개 세션에서 8개의 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첫 번째 세션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을 주제로 각 병원의 기획 발표가 진행되었으며 두 번째 세션에서는 '환자안전 및 표준화'를 주제로 부속병원별 우수활동 성과가 발표됐다.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전략' 심포지엄 개최

천안병원이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전략 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심포지엄은 지난해 9월 정부 지원 '이공학 학술연구 기반 구축(R&D)' 사업에 선정된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과제는 '한·영 유전체-신경영상 빅데이터 공동활용: 맞춤형 비침습적 뇌 자극 프로토콜 개발을 통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관리 전략 제시'를 주제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연구팀은 한국과 영국에서 일반인 100명을 선별해 ▲경두개직류자극 ▲경두개초음파자극 ▲경두개자극자극 등을 적용한 뒤, 뇌 신경가소성 변화를 뇌 영상 및 유전체 데이터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뇌 자극 반응과 관련된 유전자 마커를 발굴하고, 통합 예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환자 맞춤형 정신건강 관리 플랫폼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개원 47주년 기념식 개최

구미병원은 2일 오전 8시 본원 향설대강당에서 개원 47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김성호 병원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자 및 교직원 150여 명이 참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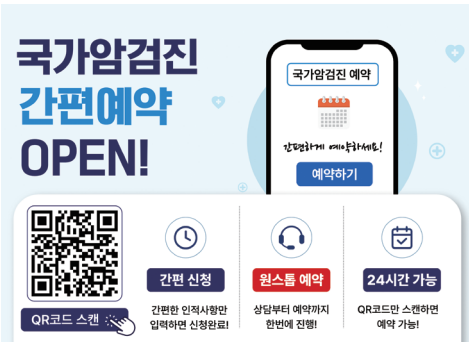
행사는 ▲국민의례 ▲병원장 기념사 ▲구미시장 축사 ▲장기근속 교직원 시상 ▲모범직원-베스트직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기념식에서는 5년, 10년, 20년, 30년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마취통증의학과 배상철 교수,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임건일 교수 등 교직원 92명이 장기근속 표창을 받았으며, 환자 중심의 고객감동 실천에 기여한 마취통증의학과 이동기 교수 등 6명이 모범직원 및 베스트직원으로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김성호 병원장은 "1970년대 구미공단 조성 이후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출발한 우리 병원이 47년 동안 교직원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경북 중서부권을 대표하는 의료 중심지로 성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의료의 중심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건강한 공동체 조성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미병원, 국가 암검진 간편예약 서비스 운영

구미병원은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예약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QR코드가 포함된 홍보물을 원내 곳곳에 비치해 내원객들이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QR코드 및 홈페이지 내 국가암검진 간편예약에 접속해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담당자가 신청자에게 직접 연락해 상담부터 예약까지 한 번에 진행해주는 원스톱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이를 통해 보다 간편한 절차로 검진 예약 접근성을 높이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국가 암검진을 사전 예약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강화했다.

구미병원은 이번 간편예약 서비스를 통해 국가암검진 참여율 향상은 물론, 조기검진을 통한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미병원, 내원객을 위한 순천향 갤러리 오픈

구미병원은 외래관 1층에 환자와 내원객을 위한 문화공간인 순천향 갤러리를 새롭게 오픈했다. "치유의 여정, 피어나는 희망"을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는 진료실과 병동 곳곳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함께한 따뜻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각 사진에는 환자와 보호자의 진솔한 이야기를 함께 담아 깊은 공감을 이끌어냈다. 입원 기간 동안 의료진에게 느낀 감사의 마음을 시로 표현한 환자의 사연을 비롯해, 365소아청소년진료센터를 찾은 보호자의 이야기,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의료 봉사 등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이를 통해 구미병원의 환자 중심의 진료와 지역사회와 함께해온 다양한 의료 활동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구미병원은 앞으로도 전시공간을 활용해 병원의 다양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내원객과 교직원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햇살아이지원센터 이사회 개최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대표 신경숙 가정의학과 교수)는 지난 3월 24일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2025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과 2026년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심의의결했다.

2025년에는 취약계층 아동 의료비, 심리검사비, 심리치료비, 부모 상담 지원 등 총 548건을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취약계층 및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언어치료 및 발달치료 지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아울러 경북도청 공익지원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위기취약계층 아동 심리정서 지원사업'을 수행하며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인정받았고, 저신장-성조숙증 검사비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했다. 한편 기부 감사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부 참여를 확대했으며, 그 결과 기부자가 4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4월부터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햇살아이 치아주치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 아동보호기관과 보호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순천향구미 햇살아이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의료 및 정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SCH NETWORK

순천향 인간사랑 50년,
의료를 넘어 사람을 꽃피우다

SCH 서울병원
www.schmc.ac.kr/
02-709-9114



BUcheon

SCH 부천병원
www.schmc.ac.kr/bucheon
032-621-5114



ASAN

순천향대학교
www.sch.ac.kr



GUMI

SCH 구미병원
www.schmc.ac.kr/gumi
054-468-9114



SCH 천안병원
www.schmc.ac.kr/cheonan
041-570-2114

